

민주, 광주·전남 예비주자들 면접 어떻게

“의정 활동 계획 구체적으로 밝혀라”

정체성·개혁성에 지역 현안 인지 여부도 평가

민주통합당의 컷-오프(후보압축) 결과가 이달 말에는 윤곽을 드러내고 다음 달 초순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말까지, 면접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컷-오프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예비 주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다음 주에 치러지는 면접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여론조사=일단 이번 주말까지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 주자들에게 대한 적합도 및 지지도 여론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

원다면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예비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상호 평가는 지역별, 상임위원별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실사도 17일 마무리된다. 총괄 실사 보고서는 18일 중앙당 공심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까지 공천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 준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면접=오는 22~23일 이들 동안 광주·전남 지역구 예비 후보자들에게 대한 면접이 실시된다. 면접 일정이 많이 밀려 있다는 점에서 1~2일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면접은 정체성, 개혁성, 전문성(정책), 참신성, 당선 가능성 등의 항목

■ 민주, 광주·전남 예비후보 면접 일정

22일	광주 광산을, 광안(단수후보지역), 광산갑, 남구, 동구, 북구 갑·을
23일	광주 서구 갑·을, 전남 나머지 지역구

으로 나뉘어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에서는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등 민주통합당의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과 정치·사회·봉사 활동,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과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탈·복당 등 정치적 정체성, 범죄 경력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면접 점수는 컷-오프 배점의 20%나 되는 데다 공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어 광주·전남지역 예비 후보들은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경선=이번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다음 주까지 면접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달 말까지 컷-오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민 경선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0~29일까지 선거인단 모집이 마무리된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구는 여성 후보 공천과 야권연대 등이 맞물리면서 경선이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 각 예비 후보 캠프에서는 컷-오프 통과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경선에 대비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조직 확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말이면 컷-오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전망”이라며 “호남 지역은 일부 논란이 있는 지역구를 제외하고 다음 달 초에 국민 경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이대통령은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최악 부패 비리, 대통령 사과하라”

■ 민주 한명숙 대표, 대국민 기자회견
총선 승리엔 한미FTA 전면 재검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MB(이명박 대통령) 정권 4년은 총체적 실정과 실패, 무능의 극치이며, 가장 최악은 부패와 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회견문에서 “난폭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다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조수석에서 침묵으로 이명박 정부를 도운 만큼 모르는 척, 아닌 척 숨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현 정부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식물 정부”라며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보편적 복지 확충 등 5대 경제비전으로 총선에 임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5년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졸부세’를 타고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자 헛공약이었다”며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 5년이 힘들었지만 파헤쳐 망가진 4대강은 100년, 200년을 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MB정부의 한미 FTA는 골육적 외교협상으로 만들어졌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에 대해 재(再)협상과 전면 재검토를 하고, 만약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연대에 대해 “총선 승리는 야권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그러기 위해선 야권연대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내부적으로 야권연대를 준비해 왔고 이제 수면에 떠오를 시기가 됐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민주 현역들 기득권 차단에 “못해 먹겠다”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물갈이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차단하는 쪽으로 심사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4·11 총선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징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원 간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점수화하는 ‘현역의원 다면평가제’와 정치 신인이 현역보다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인지도가 높을수록 감점이 되는 ‘인지도 핸디캡’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역의원 물갈이 여론도 현역의원들을 잔뜩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최근 공천심사위원회가 현역 30% 물갈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면서 현역의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일각에선 “왜? 현역만 갖고 그러

느냐.” “정말 못해 먹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되나?”라는 등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앙당에서는 공천심사기준으로, 지역에서는 물갈이 여론으로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완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이 같은 심사기준이 호남을 겨냥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호남은 물갈이론이 꾸준히 거론됐는데도, 새누리당과의 공천 경쟁에서 인적 쇠퇴의 이미지를

인지도 높을수록 감점
‘공천심사 핸디캡’ 적용
곳곳서 불만 목소리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선거 때마다 물갈이 1순위 지역으로 꼽혀왔다.

광주의 한 현역 의원은 “수도권과 충청은 단수 후보, 지도부 등을 빼면 교체 대상이 몇 명 되지 않고 결국 호남으로 갈남이 향할 것”이라며 “호남은 선거 때마다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물갈이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 개혁공천 요구 정체성·도덕성 엄격하게 적용하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민주통합당 광주지역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참여자치21은 15일 “민주통합당 개혁공천의 바로미터는 광주 공천에 있다”며 “현역의원의 정체성과 도덕성, 지역민의 평가를 엄격

하게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21은 이를 위해 정체성과 도덕성, 지역민들의 평가를 공천 기준에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체성 평가로는 ▲한미 FTA 찬성 또는 협상과 의원 ▲4대 강 찬성

의원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주장 의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및 민주세력 통합 재해 정치세력 ▲낮은 당적변경 정치인 등을 내세웠다. 또한, 도덕성 평가 내용으로 친인척 관련 비리 또는 뇌물, 정치자

금 수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을 규정했다. 지역민들의 평가 내용은 지역구 의원에 대한 지역민 여론, 지역민과의 소통 및 능력과 기여도 등이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에 대한 정당적 평가를 통해 지역 민주당 지지율 대비 개인 지지율 80% 이하는 공천 배제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래 저래 총선 끝났군

2012 학년도 고구려대학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2년 2월 6일(월) - 2012년 3월 2일(금)

계열	학 과	
보 건	치위생과★	
	한약보건의료과★	
	보건의료행정과※	
	뷰티미용과	
공 업	토목조경학부	토목전공 조경전공
	신재생에너지과※	
	유아교육과★	
인 문 사 회	사회체육과	
	경찰부사관학부※	경찰행정전공 부사관전공
	항공관광학부	항공운항전공 호텔관광전공
	공연예술치료학부	공연제작전공 실용음악전공

계열	학 과	
복 지	사회복지과(주/야)	
	사회복지상담과(주/야)	
	다문화복지과(주/야)	
	보건복지과(주/야)	
	아동노인복지과(주/야)	
웰빙부드	커피초콜릿학부	커피바리스타 전공 초콜릿티어 전공
	망고식스 디저트 카페과※	

★ 3년제 학과 ※ 2012학년도 신설학과

※ 신설학과 장학혜택 대폭 확대

망고식스 디저트카페과	매학기 등록금 40% 장학금 지급 생활관 관리비 면제
신재생에너지과 보건의료행정과 경찰부사관학부	1년(1,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생활관 관리비 면제

2012학년도 고구려대학 영광군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재용조건형)

- 학과 개요**
2012년에 개설되는 고구려대학 영광군 계약학과인 “그린에너지과”는 영광군과 대마산업단지 산업체 그리고 대학의 계약에 의해 미래전략산업인 전기자동차, 풍력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이며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 및 투자유치 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량 강화 목표
-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모집인원	비 고
그린에너지과	50명	

- 전형일정**

원서접수	면 접	합격자발표	비 고
2012. 1. 21 - 2012. 2. 17	2012. 2. 21. 13:00(영광군청)	2012. 2. 24. 10:00	대학홈페이지, 영광군 홈페이지

- 특 전** 1. 등록금 : 전액 면제(산업체 부담) 2. 취 업 : 졸업 후 대마산업단 산업체에 취업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지원자격**
광주·전남 지역 거주자 및 동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재(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입학 후 영광군으로 주소를 이전 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 계약학과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 대학홈피 - 입시도우미 - 입학관련양식실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보호자 학약서 1부.

- 원서접수처 및 문의**
고구려대학 영광군청 투자유치과에서 원서접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입학관리처(061-330-7321~7)와 영광군 투자유치과(061-350-5466)로 문의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http://ipsi.kgrc.ac.kr
www.jinhakapply.com
www.uwayapply.com

상담전화

080-330-7300

TEL : 061-330-7321~7 FAX : 061-330-7322

전문인육성 교육중점대학
고구려대학
KOGURYEO COLLEGE
520-713 전남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 837-8